



■ 김효신의 포르투갈 여행기

포르투, 도우루강이 흐르는 곳

4. 타베르나 상투 앙토니우 (Taberna Sto. Antonio)

가방을 대강 풀어놓고 나니 배가 무척 고했다. 아침에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하몽 샌드위치를 먹고 난 후 아무 것도 먹은 것이 없는데 벌써 오후 2시가 넘었다. 우리는 빨리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다. 포르투 첫 식사는 '타베르나 상투 앙토니우' 라는 곳에서 하자고 ROI 말했다. 열심히 검색해서 찾은 현지 맛집이라고 한다. 걸어서 약 15분 내 거리이니까 금방 갈 수 있다고 해서 당장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따뜻한 스웨터를 잘 챙겨 입고 호텔을 나섰다. 호텔 문을 나서 골목을 돌아 나오면 바로 도우루강이 나온다. 우리는 아까 택시가 와서 섰던 작은 광장으로 나와서 뭉게구름 사이로 비치는 눈부신 햇살 아래 도우루강을 바라보았다. 멀리 철제 다리가 보이고 강 건너 언덕 높은 곳에 거대한 둥근 건물이 서 있었다. '프라사 다 리베이라' 라 부르는 그 작은 광장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는데 포르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섞여 있을 것이다. 가까이서 처음 바라본 도우루 강변 풍경은 화려하거나 세련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은근히 거칠면서도 빈



가 낮은 듯 친근한 분위기여서 마음에 들었다.

배가 너무 고퍼서 도우루 강변 구경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우리는 '타베르나 상투 앙토니우' 로 발길을 옮겼다. 광장을 뒤로 하고 아까 택시를 타고 내려왔던 언덕을 걸어서 올라간다. 자동차를 타고 오며 빠르게 지나쳤던 풍경을 천천히 걸어가며 다시 보았다. 돌건물들은 하나같이 무척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듯 다 깨끗했고 지저분한 간판이나 광고물들은 일체 눈에 띄지 않았다. 우리는 카블 스톤을 걸어 구비구비 언덕을 오르고 또 올랐다. 포르투 도시 자체가 높은 지대 위에 형성되어 있어 언덕을 돌아가며 오르면 결국에는 어디서든 도우루강을 내려다 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언덕 경사가 심해지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구굴랩을 보며 가장 높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계속 올라갔다. '타베르나 상투 앙토니우' 는 그 언덕 꼭대기 동네에 위치한 자그마한 식당이었다. 노란색으로 칠한 삼층 건물 맨 아래층이었고 들어가 보니 식사를 하는 공간은 반지하층이었다. 입구에는 카운터에 바가 있고 일인용 작은 테이블이 두어 개 있을 뿐 식사를 하는 손님들은 모두 반지하층으로 내려가야 했다. 우리는 예약이 없었기 때문에 바 뒤에 있는 직원에게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손님들이 꽤 많아서 속으로는 식사를 못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손님들은 모두 포르투 현지 사람들이인지 포르투갈 어만 들었다.

주인인 듯한 중년 남자가 잠시만 있으면 이인용 테이블이 나온다고 하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다. 우리는 목이 말라서 맥주 한 잔씩을 주문하고 식당 밖에 있는 나무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다. 식당 앞은 탁 트여서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 밑으로 붉은 지붕과 하얀 벽 집들이 가득 들어찬 언덕이 그대로 다 보였다. 공기에 습기가 많아서 그런지 곳곳에 자라고 있는 겨울 나무와 풀들이 파랗고 싱싱하게 보였다. 한가한 오후 나절 꾸밈없이 그대로 드러난 동네 풍경은 소박하고 솔직했다. 나는 시원한 포르투갈 맥주를 마시면서 왜 포르투는 언젠가 한번 와 본 듯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했다.



얼마 기다리지 않아 우리는 반지하 창문으로 빛이 잘 비쳐 들고 있는 이인용 테이블로 안내 받았다. 우리가 앉자마자 에이프런을 두른 몸집이 푸근한 중년 아줌마가 작은 접시를 하나 가져와서 테이블 위에 놓고 갔다. 냅킨을 한 장 얹전히 깔았고 그 위에는 튀김 같기도 하고 만두 같기도 한 것이 네 조각 담겨 있었다. 튀김을 좋아하는 R 과 만두를 좋아하는 나는 둘 다 '이게 뭐야?' 하며 반색을 했다. 뜨겁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리 준비된 것을 갖다 준 것 같았는데 반달처럼 매끈한 두 조각은 정말 만두 같았고 수세미처럼 거친 면을 가진 두 조각은 다름아닌 바깥라우 크로켓이었다.



커뮤니티 양로병원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로 내 부모님처럼 섬기는 양로병원



24시간 병간호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 링거투여, 호스피스케어
- 외상치료, 호흡기치료, 기관절개치료

각종 여가활동

- 각종 교육 프로그램
- 아트와 게임
- 종교활동
- 운동 프로그램

다양한 제공

병원 예약, 차량제공
영양상담과 다양한 메뉴 제공

**메디케어, 메디칼
Private/HMO/PPO**

9620 Fremont Ave., Montclair, CA 91763
(909) 621-4751
 한국어 상담: Faith Lim (562) 714-7792
www.communityech.com

아늑하고 편안함,
최첨단 의료시설과 환경
한국인에게 친절한
상담을 받으세요.







